

USDA 2015년 낙농 전망*

최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미국 낙농업 동향

2015년 미국 낙농업은 우호적 수익 시기에 편승하였으나, 유제품 공급이 늘어나고 수출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압박 등 잠재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4년 우유 가격은 높은 기록치를 보였고, 2013년 가격은 3번째로 높았다. 2013년 사료가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2014년 사료가격 대비 우유가격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낙농업 분야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9만 9,300두의 소를 더 늘리는 등 생산자들은 가축 두수를 늘리며 이에 대응하였고, 생산자 이익 개선은 생산력 증가를 촉진하였다. 2014년 1월 기준 젖소 1두당 평균 산유량은 약 2.0% 성장하였고,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급격한 성장률이다. 그에 따라 전체 산유량은 2.4% 증가하였다.

2014년 연초 생산 증가속도 둔화와 수요급증 그리고 수출에 따른 수익성 증가로 우유가격은 거의 매달 기록을 경신할 만큼 치솟았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시장에 점차 통합됨에 따라 가격 변화보다 교역에서의 변화가 더 중요해졌다. 2014년 하반기 수출

* (choimj@krei.re.kr). 본고는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Forum의 「Dairy Outlook: Outlook for U.S. Dairy」 부분을 번역·정리한 것임

은 수출국간 경쟁구도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국이 생산을 늘렸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출은 감소했고 달러 강세화의 영향도 있었다. 미국의 국내 원유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제품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조정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수출용인 탈지분유 가격은 9월부터 전년도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치즈는 12월부터 하락하였다. 버터는 재고량이 빠듯한데다 연휴기간의 수요 때문에 1월까지 전년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다.

2. 2015년 낙농 전망: 소 1두당 산출소득 생산증가 견인

2015년 우유생산은 2,115억 파운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대비 2.7% 이내로 증가하는 셈이다. 2015년 1분기 이윤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생산자들은 2014년보다 낮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점차 소 두수를 늘릴 것으로 기대되며, 두당 산출은 추세치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월 1일, 젖소 사육두수는 2014년 대비 1% 높았고, 생산자들은 여기에 1% 이상의 초임우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100두당 초임우 대체 숫자는 최고기록에 육박하고 있지만, 1월 젖소 가격은 1년 전보다 약간 높아, 낙농우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린 젖소 초임우의 가격은 최근 몇 주간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2015년 젖소의 사육두수는 평균 932만 두로 2014년 대비 0.7%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당 산출은 2015년보다 2%이내로 증가할 것이고, 2014년 보다는 더딘 속도지만 일 평균 성장률이 지난 5년간 보다 높은 수치이다. 사료가격은 1년 내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고, 알팔파 건초 가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목초지가 정상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반영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가뭄으로 인한 조사료 공급 감소에 따라 우유 생산도 제한적일 것이다. 2015년 초반에는 우유 가격이 낮아 일부 생산자들은 사료비용 하락에 따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3. 국내수요 공급증가 상당부분 흡수

2014년 1분기 유제품의 높은 국제적 수요는 국내수요 감소를 상쇄시켰다. 그러나 수출국이 경쟁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러시아가 주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한데

다, 중국이 수입을 줄이자 국제적으로 유제품 공급은 늘게 되었다. 그 결과, 하반기부터 미국의 원유 수출은 극심한 경쟁구도에 놓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시장은 늘어난 공급에 직면하였다. 수출에서의 높은 소득으로 인하여, 전체 지방 주성분(a fat basis) 소비는(수출 및 국내소비) 2013년 동기대비 2014년 평균 3.7% 높았으나, 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어 2분기에는 1% 이하에 머물렀다. 탈지고형 주성분(a skim-solids basis)은 수출 증가로 인한 전체 상업적 사용이 상반기에는 평균 1.4% 이상 늘었으나 하반기에는 1.4% 이내로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원유공급이 더욱 늘어나, 지방 주성분과 탈지고형 주성분 모두 국내 소비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제품 소비 증가는 경제 수준 향상과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감소가 유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혜택을 지탱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작년과 같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조정하기 보다는 수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낮아져 시장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 주성분의 국내 상업적 소비는 2015년 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고는 늘어날 것이다. 탈지분유와 치즈가격이 버터가격보다 더 많이 하락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사용이 늘면서 지방 주성분보다 탈지고형 주성분의 상업적 사용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지고형 주성분의 연말 재고는 2014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4. 국제 수요 하반기 강세

미국 유제품 수요에 국제시장은 더욱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2005년 미국은 우유생산의 2%를 지방 주성분으로 수출하였으며 10%를 탈지고형 주성분으로 수출하였다. 2014년까지 그 비율은 각각 6%와 19%로 늘었다. 2013년 오세아니아에서 우유생산이 감소했지만 EU 생산이 크게 늘지 않아 기존 전통적 수출국에서의 공급이 제한되자, 2013년 미국의 수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은 분유의 주요 소비자인 중국의 등장과 동시에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소비자들은 급격히 미국으로 몰리기 시작하였다. EU와 오세아니아의 우유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상반기 미국 제품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꾸준했으나, 8월부터 러시아가 미국, EU, 호주를 포함한 많은 나라로부터 유제품 수입을 금지했고 같은 기간 중국도 구매를 줄였다. 그 결과, 유제품 수입수요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급물량이 쌓여갔다. 국제 가격은 하락했으나, 상대적으로 재고가 빠듯했던 미국의 치즈와 버터, 탈지분유 가격은 당초 국제가격 하

락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여 미국 유제품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달러 강세 또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 주요 상품의 수출은 하반기 동안 감소하여 2014년 전체, 버터와 유지(milkfat) 수출은 22% 감소하였으며, 탈지분유와 유장분말(SMP) 수출은 2% 감소하였다. 하지만 치즈 수출은 3분기까지 크게 증가하여 4분기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17% 증가하였다.

2015년 미국은 유제품 수출에 지속적으로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국들의 우유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품 공급은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가뭄이 지속될 경우 우유 생산이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증가가 제한적이고 달러 강세의 여파로 2015년 1분기 미국 유제품 수출은 전년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8월부터 1년간 유제품 수입을 금지하였던 러시아가 이를 해제하고 수입을 재개할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국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출국들이 러시아로 수출을 재개하는 만큼, 미국의 수출도 하반기에 증가할 것이다. 미국 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 추가적인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2015년 지방 주성분 수출은 111억 파운드에 달하여 2014년보다 약 11% 낮은 수준이고, 탈지고형 주성분 수출은 2014년 대비 3% 낮은 약 38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상업용 유제품 재고 증가, 탈지고형 주성분 재고 비수

상업용 유제품 재고는 2014년 말 다소 혼전을 보였다. 탈지분유의 경우 2014년 1분기 대비 재고량이 감소했으나, 수출이 줄자 급격히 증가했고, 연말에는 2014년 평균량보다 86% 더 많았다. 치즈 재고량은 2013년 보다 거의 1년 내내 낮았으나 2014년 말 수출이 떨어지면서 늘어났다. 버터 재고는 2014년 내내 전년보다 낮았다. 버터 재고는 전형적으로 늦봄과 초여름에 약간 증가하였는데, 1년 전 재고수준보다 낮았고 심지어 수출이 하반기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연휴를 앞둔 가을에는 버터 수요가 늘어나 11월에 가격 강세를 보였다. 연말에도 버터의 재고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2014년 기말 재고량은 약 1% 감소한 110억 파운드이고, 우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탈지고형 주성분 재고량이 13% 이상 증가하여 131억 파운드를 넘어섰다.

2015년 유지류 재고량은 2014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탈지분유의 상반기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시장이 공급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해 재고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지고형 주성분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하여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기말재고는 132억 파운드가 될 것이며 이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2015년 가격 평균 이아

앞서 언급한 버터, 치즈, 탈지분유, 유장(乳漿)의 가격이 2014년 평균 수준이었음에도 가격변동 패턴은 2014년 초 급격히 증가하였고, 2, 3분기 당시 하락하여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버터가격은 1월과 9월 사이 1.21달러 올랐으나, 12월에는 95센트 떨어져, 그 해 평균 1파운드당 2.14달러였다. 유장의 가격은 3분기에 증가하여 1월~7월 9센트 올랐고, 7월과 12월 사이 10센트 하락하여 1년간 평균 65센트를 기록하였다. 탈지분유는 금세 가격이 올라 1~3월중 6센트 올랐으나, 연말에는 83센트 하락하여 2014년 평균 1.77달러였다. 치즈의 경우 두 가지 패턴을 보였는데, 1월 2.08달러에서 4월 2.35달러까지 올랐고, 6월까지 2.04달러로 하락하다가 다시 9월 2.35달러로 올랐다. 그 후 치즈가격은 12월 1.74로 하락하여 2014년 평균 2.16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초, 도매상품가격은 공급이 더욱 늘어나면서 압력을 받고 있다. 1분기 동안 대부분의 유제품에서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버터는 연초 기준, 재고가 상대적으로 적고, 부활절과 유월절이 1분기 수요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예외이다. 1분기 이후,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하면 유제품 가격은 점차 상승할 것이다. 치즈와 버터의 가격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로 국내수요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2015년 치즈가격은 파운드당 평균 1.595에서 1.665달러, 버터는 파운드당 1.655달러에서 1.755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분기 동안 탈지분유 소득은 국내수요에서 발생할 것이다. 버터와 탈지분유에 상대품목인 치즈와 유장 가격 수익은 탈지분유 생산을 제한하고 가격을 보조하면서 치즈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치즈가격이 더 높아지면 치즈생산자는 탈지분유를 더 요구할 것이다. 하반기에 늘어난 수출 수요는 추가적인 탈지분유 가격 지원책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탈지분유 가격은 파운드당 1.19~1.25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유장 가격은 파운드당 56~59센트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연초 재고량은 작년에 비해 적었으나, 건조 유장 수출은 약세였다. 유장 가격은 수출 수요가 증가되는 이전 시점인 2분기 내내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낙농시장이 약세로 접어들면서, 2015년 모든 종류의 우유 가격은 2014년 기록인 23.98달러/cwt 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가격은 평균 17.40~14.10달러/cwt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버터와 탈지분유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등급 IV 가격에서 상당한 하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가격은 5~7달러/cwt 만큼 낮아질 것이다. 등급 III 가격은 평균 cwt당 16.30~17.00달러

로 예상되고 등급 IV 가격은 cwt당 평균 15.10~15.9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이윤보호프로그램(the Margin Protection Program)에 참가한 낙농생산자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 허가받은 낙농운영체 50% 이상이 2015년 이윤보호프로그램에 등록했고, 가입한 55%의 생산자는 4달러/cwt 초과할 시 보장보험을 구매하였다. 2월 중순 기준, USDA 낙농 이윤보호프로그램 결정 툴(USDA's Dairy Margin Protection Program Decision Tool)은 1, 2분기 향후 몇 달간의 이익은 거의 8달러/cwt 에 불과하였지만, 하반기에 이윤이 증가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USDA. 2015. *Dairy Outlook: Outlook for U.S. Dairy*. USDA.